

[Economist] 박상현 2122-9196 shpark@hi-ib.com / 류진이 2122-9210 jinlee@hi-ib.com



10월 미 CPI, 서프라이즈는 몰라도 충격은 주지 않을 듯

그림1. 10월 유가 하락이 10월 미국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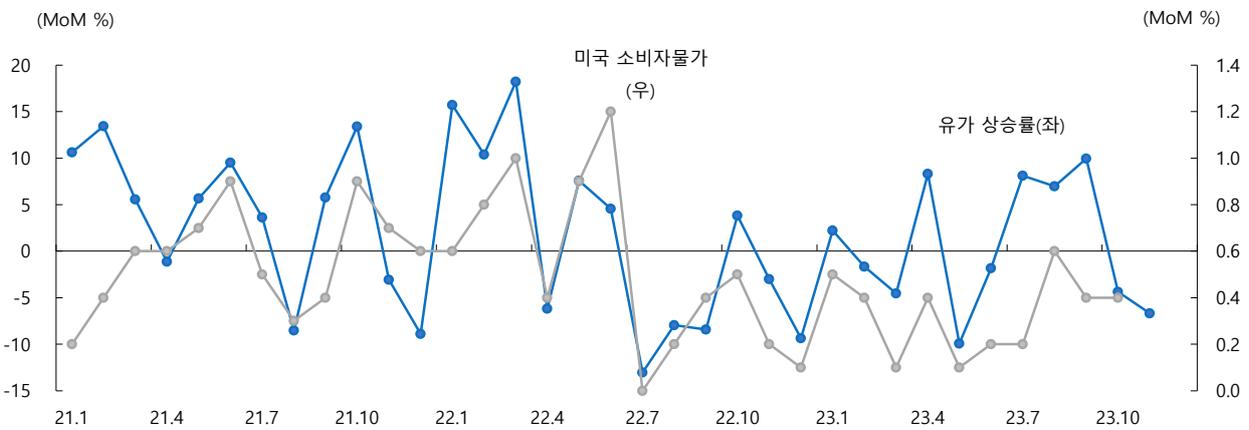


그림2. 10월 미국 중고차 가격지수도 전월비 큰 폭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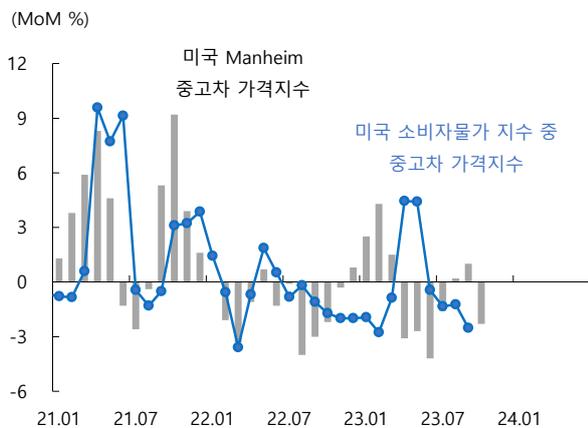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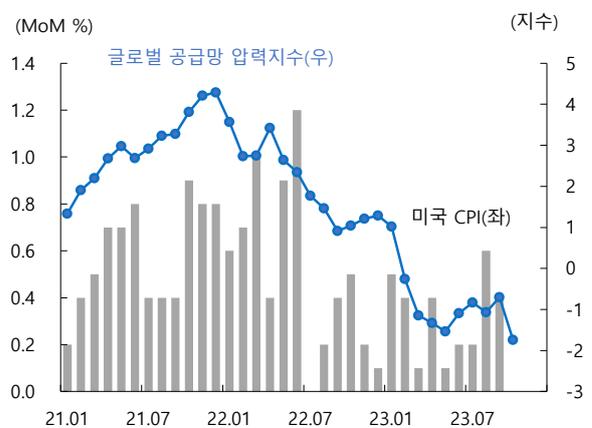


그림3.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는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기록



자료: Bloomberg, CEIC,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4. ISM 제조업 및 서비스지수 중 가격지수가 모두 안정세를 유지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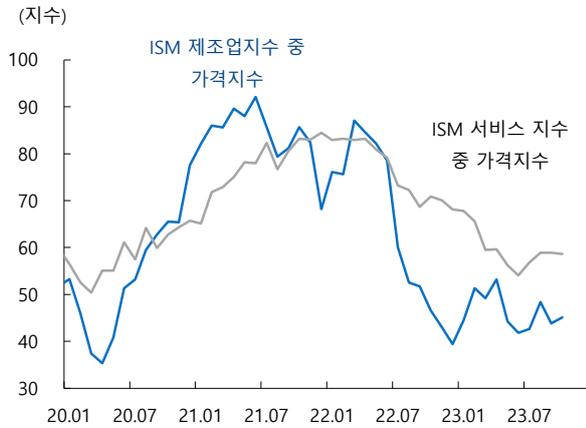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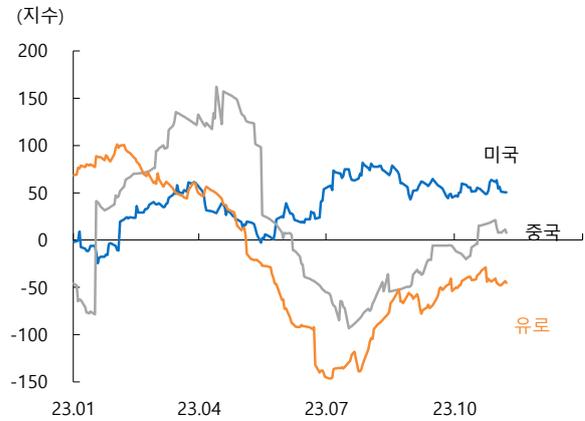


그림5. 미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지수는 완만하게 둔화되는 중



자료: Bloomberg, CEIC,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■ 10월 미국 소비자물가, 충격은 없을 듯

-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상승률(전월대비)은 9월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함
 - 미 국채 금리 하락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14일 발표 예정인 미국 소비자물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. 11월 FOMC, 10월 고용지표에 이어 10월 소비자물가마저 디스인플레이션을 뒷받침해 줄지가 관심거리임
 - 10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시장 예상치는 0.1%로 전월 0.4%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. 다만, 코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대비 0.3%로 9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. 참고로 전년동월기준 10월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코어 소비자물가 예상치는 각각 3.7%(9월 3.7%)과 4.1%(9월 4.1%)임
- 주요 물가관련 지표는 10월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를 동시에 예고 중
 -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는 WTI 기준으로 9월 대비 4.3% 하락함. 중동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하향 안정세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를 견인할 것임. 참고로 WTI 가격은 7~9월 중 각각 전월비 8.1%, 7.0%, 10% 상승하면서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음
 - 공급망 완화 시그널도 10월 소비자물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임. 10월 뉴욕연준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는 -1.74로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. 팬데믹 충격이 완전히 해소된 가운데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 여파로 공급망 압력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판단됨
 - 또한 공급망 차질 완화와 더불어 수요 둔화를 보여주는 지표는 중고차 가격 상승률임. 8월과 9월 각각 0.2%, 1% 상승했던 중고차 가격지수는 10월에는 2.3% 하락하면서 10월 소비자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이 높음. 물론 8~9월에도 소비자물가 중 중고차 가격 상승률이 모두 하락(전월비 각각 -1.2%, -2.5%)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
 - 이 밖에도 서비스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임대료 및 임금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음도 10월 서비스물가는 물론 전체 소비자물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■ 여전히 가야할 길은 험난하지만 물가압력 둔화, 즉 디스인플레이션 가시화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질 듯

- 10 월 고용지표와 소비자물가 지표만으로 디스인플레이션 가시화를 언급하기는 다소 이른감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함
 - 당사는 지난 11 월 6 일자 보고서를 통해 고용이 디스인플레이션을 견인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지만 여기에 다행히 유가가 70 달러대로 하락하고 각종 공급망 관련 지표들의 하향 안정세가 더해지면서 미국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을 점점 더 강화시켜줄 것임
 - 그리고 침체 우려는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지만 미국 주요 지표들의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음도 수요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
- 결론적으로 10 월 소비자물가는 최소한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약하지만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

Compliance notice

- ▶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 - ▶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 : 박상현, 류진이)
-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